

국악계의 양극화를 읽는 두 개의 키워드, '상품화와 대중화'

서인화 · 국립국악원 학예연구사

● ● ● 전통예술

일제강점기와 서구문화의 쇄도를 겪으면서 예술계는 전통과 현대로 양분화되었고, 전통 분야는 단절의 위기는 면했지만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축'을 면치 못했다. 1960~70년대부터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의 재고와 함께, 전통공연예술계의 상황은 많이 나아졌지만, 마치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보호센터에 갇힌 야생동물처럼 자생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생활환경과 패턴이 서구식으로 바뀌면서 감성 표현의 양식도 달라졌다. 이와 함께 전통사회에서 국악이 차지했던 자리가 서구음악,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형성되어 발전해 온 대중가요로 대체된 것은 불가피한 귀결인 것 같다.

소위 '문화의 세기'라고 하는 21세기는 문화가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상품으로 인식되고, 문화가 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문화상품화 시대'라고도 한다. 이 시대에 국악계는 대중의 호응을 받기 위해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가 변화와 혁신을 키워드로 내세우면서 문화정책에 일어난 바람의 결과의 하나도 문화산업적 관점에서 대중과 가까워지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찾아나서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쪽은 변화와 혁신의 흐름을 타고 상승하고, 이전부터 가치 있다고 평가되던 일에 천착하는 쪽은 담보상태에 놓인 것처럼 인식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관객의 수가 높은 수치로 나타나야 하고, 무대는 커지고 호응하는 목소리는 클수록 좋다. 이런 사회분위기가 국악의 양극화 현상을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멈춤과 변화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해야 산다. 조선후기 많은 고악보에 실린 악곡 중에 그대로 남아있는 곡은 하나도 없다. 사라졌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듭된 변모 과정을 거쳤다. 이익(李翼, 1681~1763)은 「성호사설」에서 “우리나라 가사에는 대엽조(大葉調)가 있다……(중략)…… 그 가운데 또 만(慢)·중(中)·삭(數)의 세 가지 조(調)가 있는데 이것은 본래 심방곡(心方曲)이라 한다. 만은 극히 느려서 사람들이 싫어하여 없어진 지 오래고, 중은 조금 빠르나 역시 좋아하는 이가 적고, 지금 통용되고 있는 것은 삭대엽이다”라고 하였는데, 이 삭대엽에서 변주가 거듭되어 19세기에 이르러 현재의 가곡 한바탕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 다수의 음악이 서양음악이 되고, 소수의 음악만이 전통음악이 되면서 음악의 자연스러운 변화가 제자리에 멈추어 선 것처럼 보인다. 무형의 전통음악이 유형의 도자기와 같은 작품처럼 건드릴 수 없는 완성품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가운데서도 창작음악 뿐 아니라 전통음악 자체에 변화가 계속되었다. 가야금에 해당하는 중국 쟁의 현이 철사로, 일본 고도의 현이 나일론 줄로 대체된 것과 달리 한국 가야금은 명주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기록된 것만 보더라도 1965년부터 김기수, 박헌봉, 장사훈, 그밖에 악기 제작자들을 중심으로 악기의 재질이나 구조를 달리하는 등의 시도가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연주 환경에 맞게 악기의 울림통이 커졌다.

이러한 변화는 동양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중간 크기의 전통악기에서 큰 저음악기와 작은 고음악기가 개발되는 것이다. 혹은 작은 악기에서 점차 큰 악기가 만들어졌다. 관악기는 연습용 플라스틱 단소, 대금 등이 일반화되었다. 특히 배우기 쉬운 단소는 싼 플라스틱 악기 덕분에 대량생산과 어느 정도의 대중화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악의 독특한 음색이 달라지기도 하고 음정의 변화도 일어났지만 얻은 것도 많았다.

상품화와 대중화의 가치

국악계에서는 요즘 대중이 좋아할 수 있는 레퍼토리를 개발하고, 국악계의 스타를 키워 국악 상품을 만들고, 대중음악인들을 국악계에 흡수하여 대중음악에 국악적 요소를 가미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4년부터 복권기금으로 개최하는 초유의 국악축제인 국악축전의 모토도 대중화였다.

국악상품화는 국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악을 대중에게 알리는 첨경으로 많은 연구와 개발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또한 국악대중화의 일차적인 의미는 국악을 국악인의 소유물에서 일반인에게 널리 알린다는 것인데, 국악대중화가

주는 또 다른 이미지는 대중문화와 관련이 있다. 「대중문화의 패러다임」(원용진, 1996)에 의하면, 과거에 대중문화는 ‘저급문화 혹은 저급매체인 대중매체의 사생아’로 건전한 문화와 고유 ‘민족문화’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말초적이며 퇴폐적인 정서들에 호소함으로써 지배계급을 공고히 하는 제도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요즘 대중문화는 사회의 적이라는 시각을 탈피해서 국제화 혹은 세계화 등 신세대 문화의 진취적인 성향을 담은 새로운 문화로 평가되고 있고, 그 점

실제 국악대중화를 위한 많은 실험적인 작업들은 그 자체로 신선한 충격을 주고 국악의 풍부한 가능성을 시사 하기도 한다. 하지만 국악상품화는 수익의 잣대로 국악의 가치를 숫자로 매기는 위험이 따른다. 지금 대중에게 어필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속단해버릴 수 없다. 한편, 상품화를 강조하는 예술정책의 변화에 따라, 기관에 소속된 국악인들은 앞으로 티켓을 팔러 다녀야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생산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마치 닭이 알 낳는 수를 세고 있을 것 같으면, 연주자들은 경영자에게 대한 신뢰감을 갖기 어렵다.

일단 국악계의 스타가 된 사람은 많은 지원을 받고 국악계를 대표하여 활동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별 수입이 없이 어렵게 자기 돈을 들여 공연을 열어야한다. 이것은 예술 장르를 선택하여 중요무형문화재로 인정하고, 결국 예술에 어떤 위계를 정하게 되는 결과를 낳고 문화재 지정에 관심을 가진 많은 연주자들이 한 지성자에게 과도하게 물리는 경향과 매우 흡사하다. 예술에는 평균이 있을 수 없다. 또 국악스타는 국악대중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을 상기하면 대중음악을 국악 쪽으로 가깝게 끌어 들이는 일은 국악의 진보적인 방향이라고 평가된다.

실제 국악대중화를 위한 많은 실험적인 작업들은 그 자체로 신선한 충격을 주고, 국악의 풍부한 가능성을 시사 하기도 한다. 국악대중화 과정에서 여러 실험적인 작업과 창작을 통해 거꾸로 전통음악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 '유형의 고려청자와 같은' 과거의 음악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야도 열리게 된다. 그래서 '또 다른 도자기' 를 창조할 수 있는 힘도 생길 수 있다고 본다.

상품화의 문제점과 대안

하지만 국악상품화는 수익의 잣대로 국악의 가치를 숫자로 매기는 위험이 따른다. 지금 대중에게 어필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속단해 버릴 수 없다. 최근 어느 실크 연구가에게 우리나라가 전통사회에서 성행하던 양잠업에서 너무 빨리 손을 떼었다는 비판의 소리를 들었다. 생산성이 없다고 판단한 누에의 가치가 첨단산업에서 크게 부각되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양잠 산업이 회생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이를 교훈 삼아 국악도 당장 수익이 없어 보이는 정가와 같은 종목에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속적인 투자와 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몇 년간 정책적으로 강조되던 전통예술 교육이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아르떼 오픈 등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활기를 띠고 있어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편, 상품화를 강조하는 예술정책의 변화에 따라, 기관에 소속된 국악인들은 앞으로 티켓을 팔러 다녀야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문화산업을 위해서 예술가로서 경영 마인드를 가진 이들이 각광을 받고, 그들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생산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마치 닭이 알 낳는 수를 세고 있을 것 같으면, 연주자들은 경영자에게 대한 신뢰감을 갖기 어렵다.

실제 많은 전통공연은 수익성이 없어 보인다. 이런 공연은 지원을 받기도 어렵다. 또 지원을 받고 싶어도 과정을 잘 모르고, 복잡한 과정을 시기에 맞추어 거들어줄 사람이 없는 연주자들도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연 지원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공고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많은 전통음악이 과거에는 기능음악이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이를 상실했다. 과거에는 논일을 하면서 모내기 소리를 하고, 사람이 죽으면 상여소리를 하고, 연례에서 왕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수제천을 연주하고, 돌아가신 임금에게 제사를 지낼 때 종묘제례악을 연주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기능이 없어졌기 때문에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무대화하면서 변화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러한 공연예술을 복원하는 작업이 국악의 상품화와 관련해서 상당히 지속되어 왔다. 한편에서는 이와 반대로 다소 소극적인 변화였던 무대화 등 근현대의 전승을 넘은 창조적인 변화를 꾀하기도 한다. 모두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전승되고 있는 음악 자체의 철저한 연주와 분석,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장 소홀하게 다루어지기 쉬운 분야가 지금까지 전승되어온 국악에 대한 철저한 학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과거의 전통음악 끌어안고 다원화 추구해야

국악대중화도 상품화와 비슷한 문제점을 드러낸다. 일단 국악계의 스타가 된 사람은 많은 지원을 받고 국악계를 대표하여 활동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별 수입이 없이 어렵게 자기 돈을 들여 공연을 열어야한다. 이것은 마치 예술 장르를 선택하여 중요무형문화재로 인정하고, 결국 예술에 어떤 위계를 정

몇 년간 정책적으로 강조되던 전통예술 교육이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아르떼 오픈' 등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

<http://www.iarte.co.kr>



하게 되는 결과를 낳고 문화재 지정에 관심을 가진 많은 연주자들이 한 지정자에게 과도하게 몰리는 경향과 매우 흡사하다. 물론 예술에는 평균이 있을 수 없다. 또 국악스타는 국악대중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지나치게 스타와 아닌 사람을 분리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양한 색깔을 가진 예술가를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들을 지원할 때 '나누어주기' 식으로 한다면,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아무도 '못하게 되는' 딱 그 수준까지만 '골고루' 지원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한편, 간혹 대중을 강조하는 국악 공연이 국악의 다양한 언어를 단일화 해버리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국악이 대중화가 되기 위해서는 대중이 일괄적 문화향유가 아니고, 나이·성별 등 차별적 향유 존재이며 문화소비자들은 끊임없이 차이를 추구하는 존재이고, 그 차이를 상품화하는 문화산업의 복합적 산물이 대중문화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국악계가 좀 더 다양한 과거의 전통 음악을 끌어안고 다원화를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악을 현대화한다고 세계에 많은 음악의 하나일 뿐인 서양음악의 음계에 국악을 맞추려고 하고, 또 많은 서양음악 가운데 하나일 뿐인 고전주의 음악을 기준으로 하는 일은 재고를 요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악대중화를 추진할 때 대

국악축전 <http://www.gugakfestival.or.kr>



국악이 대중화가 되기 위해서는 대중이 일괄적 문화향유가 아니고, 나이·성별 등 차별적 향유 존재이며 문화소비자들은 끊임없이 차이를 추구하는 존재이고, 그 차이를 상품화하는 문화산업의 복합적 산물이 대중문화라는 점을 상가해야한다. 국악계가 좀 더 다양한 과거의 전통음악을 끌어안고 다원화를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중음악의 잣대를 어느 하나로 하지 말고 대중음악을 심도 있게 연구해서 다양한 음악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무현금의 마음

국악의 상품화와 대중화는 시급한 일이다. 그러나 국악계의 흐름을 볼 때 서양음악에 대한 콤플렉스에서 이제는 대중음악에 대한 콤플렉스까지 아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아 안쓰럽다. 공연의 결과는 흥행의 정도로 결정된다. 이것은 마음을 착하게 먹으라고 가

르치는 엄마보다, 눈과 코를 크게 고치고 이 교정을 서두르는 엄마들이 더 많은 세대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다.

내 어린 친척 아이가 엄마 손에 끌려 피아노 연주회에 가서, 엄마를 뺀히 보면서 “엄마는 저 사람이 맞게 치는지 틀리게 치는지 알아? 모르면 우리가 이 음악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야?” 라고 물어서 당황했다는 말을 들었다. 우리는 대부분 들리는 음악과 나의 괴리에 대한 의식이 없이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다. 정책 구호에 잇하기 쉬운, 먹고 지는 일상의 생활과 작고 가난한 무대를 소중히 할 수 있는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인 것 같다.

변화와 혁신의 구호 속에서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조선시대 줄이 없는 무현금의 정신이다. 보통의 연주거나 예술행정가에게 손끝에서 나오는 현의 소리에 자신을 묶어두지 않았던 선비정신을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옛 선비들이 거문고를 즐기는 뜻은 단순한 기예의 연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고 기르는 데 있었다. 물론 전문 연주자는 기예의 연마가 관건이다. 그럼에도 우리 음악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정신세계는 자연 속에서 자유로운 생명력을 얻어 소리를 초월하는데 있다고 보인다. 결국 이러한 정신이 미래의 예술을 선도하는 힘이 되지 않을까. 